



서른두번째 이야기

그 사랑이 흘러

[양재BEE 기도모임 7주년 리트릿 후기]



벌써 양재 BEE 기도모임이 생긴 지 7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안성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1박 2일(11월

11~12일) 동안 7주년 기념 리트릿(retreat)이 있었다.

2016년 청년부 시절 로마서 세미나 재수강을 하던 중 인도자님이셨던 정대서 장로님께서 양재에 BEE 기도모임이 열릴 예정이라고 알려주시며 초대해 주셔서 첫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 후 7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내 삶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믿음의 동역자이자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두 아들(5세, 3세)을 낳고, 키우고 있다. 그동안 기도모임에 자주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싱글로 혼자 참석했던 기도모임에 가끔이라도 어느 순간 남편을 데리고, 또 어느새 인가 아이들도 데리고 함께 기도모임에 갈 수 있었음에 참으로 감사함을 깨닫는다.

이번 7주년 리트릿에 남편의 도움으로 두 아이를 맡기고 첫날 하루를 참석하게 되었다. 전날까지 남편의 심한 몸살감기로 리트릿 참석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었는데 당일 남편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가도 괜찮다는 말을 듣고 안성 수양관으로 출발하였다. 도착해서 산속에 고즈넉하게 자리 잡은 수양관 건물을 보니, 도시 생활에서 느꼈던 그리고 육아로 인한 분주함이 사라지고

차분하고 평안한 마음이 스며들어왔다. 리트릿 장소에 들어서니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선교사님들이 반갑게 맞아주시고 간식도 챙겨주셨다. 오기 전에 잘 먹지 못하고 나온 터라 허기진 상태였는데 챙겨주신 달콤한 도넛과 따뜻한 커피, 달달한 곶을 먹으며 육체적인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었다. 김영관 장로님의 교회론 에센스 강의에 앞서 정대서 장로님께서 우리가 무슨 공동체인지에 관해 물음을 던지셨다. 기도공동체인가? 아니면 말씀공동체인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여기 모인 사람들 안에서 정의(definition)될 수 있어야 한다는 화두를 던지시며 그렇게 교회론 강의를 시작되었다.



먼저 한국교회의 현황 분석, 성장 요인 분석, 주요 문제점들, 건강성 진단이 있었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어떤지, 참된 예배란 무엇인지, 교회의 성격과 목적, 삼중 렌즈로 들여다보기, 예배론, 성숙론, 성장론, 성숙의 척도 등을 배웠다. 이렇게 교회를 관한 내용을 들으면서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 나에게 적용해야 할 것들이 많음을 깨달았다. 챕터를 계속 넘어가던 중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이 의무보다는 사랑의 결과이기를

원하신다'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때로는 벽 찬 육아의 일상에서 어느 순간 의무감이라는 단어가 내 삶을 지배해 온 것 같다. 엄마로서 주어진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오늘 아이들에게 해야 할 일들을 끝내야 하는 것,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 등 어느 순간 기쁨 없이, 사랑보다는 의무감으로 하루하루 육아를 했던 것 같다. 그러니 육아가 버거워지고 모든 일이 해야 할 숙제 처럼만 느껴졌다. 무언가 문제상황 속에서 아이들에게 사랑과 인내심으로 대하기보다는 빨리 고쳐야 할 것으로 조급하고 예민하고 감정적으로 가르치며 대하곤 했다.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어느 순간 내 안에서 메말라져 가고 있었고, 아이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었다. 아이들 뿐만 아니라 나의 주변 지인들에게 또한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한 것 같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받고 있는가? 내 모든 일상(가정과 교회, 내 주변)이 사랑의 결과로 시작하고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한다.



그렇게 교회론을 마치고 저녁 식사와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후 백인호 목사님의 인도로 2023년 한 해 동안 일어났던 양재 BEE 10대 뉴스 중 5가지를 투표로 선정하며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빙고 BEE 기도모임의 역사를 듣고 또한 7년간의 양재 BEE의 사진과 영상을 보며 그 발자취를 회고하고, 모임의 현황과 미래 방향에 대해 조별로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다. 조별 발표를 통해 취합한 결론은 세미나 중심(말씀 세미나 성원과 활성화, 인도자의 세미나 인도 다수), 아웃리치와 연결(세미나 참여자도 함께 아웃리치 구상 및 참여), 조별 나눔 활성화(조장 중심의 조별 아침식사)였다. 그렇게 양재 BEE의 활성화를 위해 열정적 토론과 나눔을 하다 보니 어느덧 늦은 밤이 되었다. 늦은 밤 집으로 돌아

오면서 오늘 리트릿에 참여를 할 수 있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양재 BEE 모임에 참여하면 가지인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도록 많은 격려와 도전과 배움과 위로를 얻고, 또한 매일의 일상에만 시선이 머물지 않고 선교지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우치게 되는 것 같다. 말씀과 말씀 사역을 사모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이 모여있는 이곳으로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모임에 갈 때마다 항상 따뜻하게 맞아주시며, 이 모임을 위해, 보이는 곳에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시고 애써주시는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린다.



[글쓴이 김민정 성도]



온누리교회 푸른누리공동체 (젊은 부부 공동체) 순모임에 참여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BEE 세미나를 틈틈이 수강하고 있다. 청년 때 의상 디자이너로 일을 하다가 크리스천 힙합 문화 사역을 하는 형제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아들 둘(5세, 3세)을 양육하고 있다.

[정리 정주영 편집 최선]

BEE 소식

1. 2023년 “나는 빛진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빛진 자로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BEE 가족을 축복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자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빛진 자라(롬1:14).”

2. 12월 11일(월) 오후 6:30 두란노 홀에서 Blessing BEE Korea[BBK] 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새롭게 주시는 비전을 기대하며 나누는 귀한 시간에 BEE 식구들을 초대합니다!

